

해외 출장 보고서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전략개발)

동향분석센터 연구위원 곽숙희

가. 과제명: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주류화를 위한 전략개발': 외국의  
선진사례 비교연구

나. 일시 및 장소: 2007년 5월 30일-6월 8일, 영국 및 독일

다. 목적: 1. ODA의 외국 선진사례 연구  
2. 영국 및 독일의 사례 조사

라. 해외출장세부일정(영국, 독일)

날짜	출장일정	참조
5/30(수)	Incheon Departure (13:35시) London (16:55시)	
5/31(목)	DFID in London, England	Mr. Gerard Howe Senior Gender and Rights advisor Equity and Rights Team +44 207 023 0234 07969 154725
6/1(금)	-Landesbibliothek in Stuttgart	
6/2(토)	-Brot fuer die Welt in Stuttgart	
6/3(일)	-Data Collection in Stuttgart	
6/4(월)	-Frankfurt Arrival (early mornning) -Gender Budgeting toward social equal opportunitites Fachkonference in Frankfurt 참석	Prof. Diane Elson, Department of Sociology and Human rights Centre, University of Essex  Dr. Andrea Peto, Department of Gender Studies, Central European University  Sheila Quinn Independent Researcher & Policy Consultant,

		by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11:00-20:00) Mr. Andreas Kirner, Mr. Anke Hetzel(organizer)
6/5(화)	-Gender Budgeting toward social equal opportunities Fachkonferenz in Frankfurt 참석 -BMZ in Bonn	Dr. Angela Langenkamp Beraterin fuer Gender in der EZ in BMZ Angela Eckert, Governance, Democracy, Human Rights, Gender BMZ
6/6(수)	-GTZ in Eschborn -KfW Entwicklungsbank in Frankfurt	Ms. Cristine Brendel Programmleiterin, GTZ  Dr. Stefani Klos Senior Sector Economist (Poverty Reduction, MDGs, Gender) Policy Department - Development Economies (AS3) KfW Bankengruppe - KfW Development Bank Palmengarten Str. 5-9, D-60325 Frankfurt, Germany Tel. +49 69 / 7431-3835; Fax.+49 69 / 7431-3363 Stefani.klos@kfw.de
6/7(목)	-Frankfurt Departure(19:45시)	
6/8(금)	-Arrival in Incheon, (13:00시)	

마. <2007년도 공여기관 방문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MDG 달성을 위한 ODA 성 주류화 전략개발”이라는 연구 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ODA의 성 인지적 분석과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귀 기관의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ODA 사업을 질과 양의 측면에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에 선진 공여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와 수원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원조의 성 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번 방문조사를 통하여 선진공여국의 원조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원국의 수혜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귀 기관의 원조정책 성 주류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귀 기관에서 성 인지적 관점이 ODA 정책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가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귀기관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1. 정책

- 1) ODA에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역사적 배경
- 2) 성 주류화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국제적 젠더 담론의 발전 등
- 3) 법 혹은 지침에서 성 주류화를 어떻게 명시하는가
- 4) 정책 추진의 장애 및 개선 사항

## 2. 조직

- 1) 성 주류화를 위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 2) 재정,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성 인지 예산 분석은 실시하고 있는가
- 3) 젠더 전문가의 충원 혹은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4) 조직 및 예산, 인력과 관련하여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성공과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

## 3. 사업

- 1) 중점 분야, 지역, 주제는 무엇인가: 교육, 보건, 모성보호 등
- 2) 성 주류화 사업과 여성 대상 사업 중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
- 3) 여타 사업과 성 주류화 사업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성 주류화 정책과 원칙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게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5) MDG 달성을 위해 특별히 주력하는 바는 무엇인가

#### 4. 성과

1) 가장 성공적인 사례 수원국 혹은 지역은 어디인가

2)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사업내용, 프로그램, 투입 대비 결과 등

3) 성 주류화 성공과 실패 요인은 각각 무엇이며, 장애 요인 극복 방안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가

4) 개선될 점은 무엇인가

5) 사례 수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모범사례 시범연구 협조 가능성

#### 5. 평가

1) ODA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도구가 있는가: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등

2) 평가방식에서 권장할 사항

#### 6. 기타

1) 교훈

2) 웹사이트

3) 기타 자료 등

### 바. 면접 및 회의 내용

#### A. 영국의 공적개발원조(DFID)

##### (1)정치적 지도자의 역할

원조사업에서 양성평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다. 특히 부처에서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에 따라 원조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을 수행하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훈련이 중요하다”<sup>1)</sup>고 DFID의 담당관은 설명하고 있다.

##### (2)성공적인 정책입안, 실패한 정책집행

국가별 원조 사업은 최소한 3년간의 사업수행을 통해서, 양성평등의 목표를 달

---

1) 2007년 5월 31일, 영국 DFID 여성정책자문관과의 인터뷰

성했는지 분석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경행동계획에서의 논의에 따라 인권을 강화하는 데 노력한다.

### (3)원조사업의 사례

원조사업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방글라데시는 경우, “여성과 여아가 우선한다.”는 정책의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실제로 사업수행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고, 실제로 여성과 여아의 발전을 위한 결과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수혜국의 요구와 조건을 고려한 원조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MDG와 관련해서는 영국차원에서 이를 전적으로 수행할 특별한 도구와 전략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 (4)도전과 과제

-성인지 통계를 통해서 빈곤분석, 특히 사업수행을 통한 결과가 어떻게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수행을 하는 직원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젠더 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내부는 물론 외부의 전문가, 관련기구나 인사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한다.

-양성평등의 과제가 국가정책의 과제 중의 우선순위 10개안에 있어야 할 때 지속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자료를 축적하며, 이러한 정보 자료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사업 평가자료 공유하며, 좋은 활동 사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권력의 변화를 통해서,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역할 중요하다.

-활동내용이나 사업진행을 공유하는 포럼 등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모임이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고, 성별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성 주류화를 위한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B.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GTZ, KFW, BMZ)

독일은 유상, 무상원조를 분리, 관리하는 편제로서 BMZ은 독일 개발원조의 정책을 입안하며, 원조정책을 총괄하는 기능한다. BMZ 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KFW는 주로 재정적인 지원을, GTZ는 기술적인 협력을, DED는 인적인 협력을, InWent는 인적, 기술적인 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NGO가 수행하는 원조사업을 또한 지원하고 있다.

## BMZ

### (1) 제도적 장치: 독일의 헌법, EU의 정책 및 유엔의 역할

독일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법이 있고, 2001년부터 양성평등 정책이 기관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EU 차원에서 5가지 공통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양성평등의 원칙은 국제적인 협력과 공적개발원조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EU 회원들이 개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하며,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집행 하느냐 에는 이견이 있다. EU의 원칙들은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헌법으로 제도화 했을 경우에 향후 양성평등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침이 될 수 있다.<sup>2)</sup>

예컨대, CEDAW에 동의하는 것 자체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리고 모니터링 할지에 대한 전략을 개발할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OECD에서는 피어리뷰(Peer Review)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 총회 32에서 언급한바 국제적 차원에서의 원조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해당국가간의 상호협력적인 조인트 정책 입안과정이 필요하다.

### (2) 원조 정책의 최근의 경향 : 아프리카와의 파트너 쉽 형성

아프리카 파트너쉽 포럼을 통해서, G8과 아프리카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를 진행하며, 여성과 발전은 이 중의 주요한 4번째 주제중의 하나이다. 아프리카 파트너쉽 포럼(African Partnership Form)에서는 2south-2north 라는 전문가들의 모임을 통해서, 원조국가가 2개국, 수혜국 2개국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였다.<sup>3)</sup>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의 실현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조 정책의 전략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양성평등을 원조 정책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양자 간의 협력과정에서 그 성인지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나, 다자간의 협력에서 그 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 (3) 개발원조 평가체계 및 분석도구

---

2) 2007년 6월 5일, BMZ의 여성정책 자문관 인터뷰

3) 2007년 6월 5일, BMZ의 여성정책 자문관 인터뷰

현재 독일에서는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된 젠더 마커(Gender Marker)라는 지표를 통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범주에 따라서, 원조사업을 구분한다. 양성평등의 성취도가 없을 경우 G0,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양성평등의 성취도가 있을 경우 G1, 양성평등에 원칙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히 여성에 초점을 둔 경우 G2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서 성인지 분석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증진하여, 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G0의 경우, 양성평등 증진이나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잠재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성 주류화를 통해서 양성평등 이슈는 크로스 커팅 이슈로서,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두루 관장하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에도 아무런 구체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사업평가 시, 평가 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진행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의 도구는 개별 기관 마다 각자의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의 평가 이외에, 분야별, 프로젝트별, 프로그램 별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BMZ에서도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분야별, 지역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05년 8월에 도입된 정책 지침에 따라서 사업평가지침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의무적인 이행사항이 되었다.<sup>4)</sup> 2006년에는 조인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젠더 마커(Gender Marker)를 적용하게 되었고, 젠더마커를 통해서, 국별, 영역별, 기구별 다양한 사업내용을 평가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평가도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여성 역량강화 및 양성 평등을 증진하는 데 사업이 수행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향후의 사업계속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케냐에서의 인구계획부서에서의 주민통합과 관련된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백인 이주민과 이들의 가족, 특히 여성과 자녀들이 도시에 집중하고, 농촌지역에 흑인들이 주거하는 인구분포를 통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주민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젠더관점은 필요하다. 특히 성별분석을 통한 사업수행의 체크리스트 작성, 사업 수행의 수혜대상 등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사업예산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젠더관점이 이럴 때 의미 있는 사업 수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이미 젠더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젠더관점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 (4) 성공적인 사례: 젠더마커

---

4) 2007년 6월 5일, BMZ의 여성정책 자문관 인터뷰



성공적인 사례로는 젠더 마커와 같은 평가 도구가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젠더이슈를 정치적인 대화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수혜국에서도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 Peer Review

파리 선언문에서 선진공여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아프리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니온의 헌법에서는 여성 평등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것 정책적 차원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EU는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거듭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사업의 진척상황을 peer review라는 메카니즘을 통해서 평가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EU는 의회를 통해서 양성평등 이슈와 관련해서 양성평등을 권고하며,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을 권고한다. 수혜국의 오너쉽(ownership)을 존중하며, 변화를 위한 이들 국가의 참여를 권장한다. 빈곤퇴치, 교육, 가족 및 법 등 양성평등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OECD의 DAC에서는 젠더네트워크에 독일이 참여하고 있으며, 원조의 효율성을 논의하고 있고, 현재는 새로운 원조의 형태를 모색하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야별 협력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sup>5)</sup>

젠더이슈가 분야별 영역별로 총괄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 주로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화하느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 (5) MDG의 관련성

새천년발전목표는 사실상 영향이나 효과 면에서는 아직은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정치적인 계기이기는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sup>6)</sup>

## (6) 도전과 과제

정치적 쟁점화 및 정치적 지도력

---

5) 2007년 6월 5일, BMZ의 여성정책 자문관 인터뷰

6) 2007년 6월 6일 GTZ 여성사업부 소장 인터뷰

정치적인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의 문제가 이슈화 될 때, 양성평등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sup>7)</sup>

특히 최근 EU의 대통령 역을 독일이 맡게 되면서, 세계은행과 더불어 양성평등 이슈를 다시금 공식적으로 G8 회담에서 재조명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포럼을 통해서도 여성문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젠더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물론 시민사회의 역할,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제고 활동 역시 필요하다. 최근의 성기절단의 이슈나, 무역문제 등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브뤼셀의 NGO 자문그룹에서는 무역에서의 여성관점을 다루었다. 그러나 NGO가 정책을 입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

덴마크나 독일에서 국제개발원조에서의 젠더가 무게중심을 갖게 된 데는 정치적인 리더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OECD에서 독일은 60%이상을 젠더마크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있는 (G1) 그리고 여성에 초점을 맞춘 원조라고 할 수 있는(G2)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sup>8)</sup>

#### 개발원조 사업에서 독일 여성, 청소년, 노년부처 역할의 제한성

독일에서는 여성부가 있어서, 시민사회와의 연관성이 깊으나, 부처에 따라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가령, CSW나, 여성무역의 경우, 여아에 대한 폭력의 경우, 국가의 행동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국제원조정책과 관련해서 여성부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sup>9)</sup>

#### 성인지적 예산과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서는 성인지적 예산이 중요하며, 성 주류화를 위한 기반을 공식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GTZ

### (1)조직 및 기구

GTZ은 준정부적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젠더 자문관이 1명 있으며, 성주류화를 위한 프로그램 부서가 주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에는 인신매매, 여성의 인권문제, 경제적 역량강화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sup>10)</sup>

GTZ은 프로젝트를 젠더 마커에 따라서 G0, G1, G2로 프로젝트를 구분하고 있

7) 2007년 6월 5일, BMZ의 여성정책 자문관 인터뷰

8) 2007년 6월 5일, BMZ의 여성정책 자문관 인터뷰

9) 2007년 6월 5일, BMZ의 여성정책 자문관 인터뷰

10) 2007년 6월 6일 GTZ 여성프로그램 부서장 인터뷰

다. 성 주류화의 현재 중점사업인 인신매매, 여성의 인권, 경제적 역량강화라는 세 범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원조 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 일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과 성인식 제고를 위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직원대상 훈련 역시 실시한다.<sup>11)</sup>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개발과정 역시, 파트너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작은 원조기금을 통해서 우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작은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원조를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결과물을 통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기획은 물론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GTZ 외부의 원조관련 기구나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성 주류화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며, GTZ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신입직원에게 대해서 성인지 과정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별, 영역별 부서들 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성 주류화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 가령 환경 프로젝트나, 빈곤퇴치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성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인권과 빈곤퇴치, 젠더가 어떻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 평가한다. 영역별 프로그램에서는 영역별 파일을 만들어서, 젠더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축적하여, 향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관 외부적으로는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히 외부 기관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젠더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컨대, “인신매매 및 안전”과 관련해서, 인신매매를 다루는 경찰들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젠더관점에서 인신매매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2) GTZ의 인력구조

GTZ에서는 1명의 젠더 자문관과 5명이 풀타임 직원으로서 젠더프로그램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2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1명은 BMZ에 파견되어 젠더 정책자문관으로서 일하고 있다. 자문관 1명, 프로그램 소장 1명, 프로그램 담당 사무관 1명, 프로그램 담당 2명, 주니어 프로그램 담당 1명, 행정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은 젠더분야에서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며, 우선은 내부 직원들을 우선 고려하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외부에서 선택한다.<sup>12)</sup>

## (3) 사업평가 도구

특히 여기에서는 원조사업을 평가하는 데, 이중적인 접근을 하는데, 성인지 통합

---

11) 2007년 6월 6일 GTZ 여성프로그램 부서장 인터뷰

12) 2007년 6월 6일 GTZ 여성프로그램 부소장 인터뷰

적 접근으로서 G1과 여성중심 프로젝트라는 G2를 고려한다. 영역별 사업의 경우보다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며, 여성이 주요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들, 가령, 교육, 보건, 건강 등과 같은 사업을 고려하는 이중적인 접근을 한다.<sup>13)</sup>

#### (4) 성공적인 사례

성공적인 사업을 흔히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성공했느냐 보다는, 왜 성공할 수 없었는지 장애요인과 실패요인을 통해서 향후의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에는 좋은 사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sup>14)</sup>

### KFW

#### (1) KFW 성격

KFW는 재정적 협력을 하고 있는 데, KFW은 실제로는 독일 내의 은행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일반적인 은행이 하는 기능과 더불어 공적개발원조는 그러한 기능 중의 하나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재건을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독일내의 지원을 우선하고 있으며, 이후에 대외원조와 관련된 기능이 추가되었다. 재원 역시 독일정부의 지원금 이외에, 사적인 영역에서의 재원이 혼합되어 있다. 또한 국가대 국가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인 만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 사업의 진행방식은 KFW가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사업수행주체가 수주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있다.

#### (2) 인력배치

지역별, 영역별 차원에서의 사업수행은 물론, 제도적 차원에서 흔히 여성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젠더 포컬포인트의 형태로서 인력의 배치 혹은 업무를 부여한다. 젠더관련 일을 주무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조적인 차원에서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젠더와 관련된 관점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항상 최우선 순위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 (3) 사업집행 및 평가

---

13) 2007년 6월 6일 GTZ 여성프로그램 부소장 인터뷰

14) 2007년 6월 6일 GTZ 여성프로그램 부서장 인터뷰

이러한 과정 하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적 우위를 기관내부는 물론 파트너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관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다만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크로스커팅 문제를 체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젠더마커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단지 젠더 마커만이 아니라, 빈곤, 갈등, 환경 등의 다른 이슈들과 더불어 젠더 이슈를 검토할 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자문과 여성정책의 개념정립이나 방법론 모색을 통해서 사업들에 대한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젠더분석도구

실제적인 젠더 분석 도구를 통해서, 영역별 혹은 국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 좋은 사례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된 분석도구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항상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결과를 젠더 분석도구를 통해서 분석하며, 이를 직원들이 공유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젠더가 바로 성장을 창출한다는 사고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는 한 은행 혹은 경제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5) 도전 및 과제

##### 경제성장과 젠더관점

KFW가 은행들의 집합체인 만큼 경제적인 관점이 우선적인 순위를 갖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젠더관점이 왜 필요한 지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젠더관점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젠더관점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권리를 수혜대상 차원에서 고려하며, 성별영향 평가가 결국은 경제성장에 기여 했다는 명백한 결과만이 사업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젠더관점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 EU conference 참여

**회의명:** 2007년 유럽연합 "사회 정의와 평등한 기회를 향한 성 인지 예산"심포지엄 참가(European Symposium "Let's share the benefit- with gender budgeting towards social justice and equal opportunities")

**회의 참가목적:** 가. 유럽 연합에서의 성 주류화 동향 파악 및 성 인지 예산과 원

조의 효율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관련성 조사 나. 개발도상국 원조 지원 사례 발굴을 통한 원조 효율성에 대한 현황 조사, 다. 한국의 성 인지 예산 및 공적원조 정책에 대한 연구 상황 소개 및 홍보 라.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마. 면접대상 기관 및 인사에 대한 사전 인지도 작업 (BMZ, KFW, GTZ 등)

**참가자 :** 유럽 지역 재정부, 여성부처, 개발원조 사업 정책 실무자등 정부관료 및 학자 약 150여명 (참가자 명단 첨부 참조)

**회의 일정:** 2007. 6. 4.(월) - 5(화),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세프로그램 첨부참조)

**주요내용 :** -유럽 심포지엄은 유럽연합에서의 성인지 예산과 국제 정책의 발전과의 연관성, 특히 국제적인 개발과 협력, 개발원조의 과정에서 성인지적 예산 제도의 의미가 논의되었다. 성인지적 예산제도를 통해서 성 주류화를 위한 개발원조의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원국 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국가 자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방법, 수혜대상, 정책적 함의와 구체적 정책 수행과정상의 장애요인들이 국가별, 규모별 다양한 사례 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특히 모로코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개발원조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있었다. 모로코의 경우 선진공여국의 개발원조의 도움으로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는 이미 가시적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향후 성인지 예산의 분석도구 및 지표 등의 개발을 기획 중에 있다. 공여국의 공적개발 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개발도상국의 성 주류화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젠더가 함의 하는 바는 여성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성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을 위한 예산의 배정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예산의 배정 역시 이제는 고려한다는 것은 의미를 가졌다. 특히 전통적인 여성의 영역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남성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 예산의 배정 등은 고려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예산, 성 주류화를 위한 예산 등이 부딪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경제적 기반에 근거한 효율성과 경제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결국 성인지적 예산은 예산의 증액이 아니라, 예산의 재배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재정 시스템을 조정하고, 감사하며,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의 적절한 분배는 궁극적으로는 정부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젠더

관점은 중요하다.

-성인지적 예산제도를 통한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일할 담당자를 훈련하고, 분석도구, 평가도구에 대한 인지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 사. 평가

가. 유럽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 주류화,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향평가, 공적 개발원조 등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었음.

나. 유럽연합이라는 공통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별 국가마다 독특하게 형성 발전된 공적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의 방향과 조직구조, 인력풀, 구체적인 사업수행 체계 등에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음. 이슈 및 동향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기회가 됨.

다. 본원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성인지 예산제도 등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유럽연합국과의 개발원조 기구의 정부 관료 및 실무자, 연구기관의 교류의 채널을 열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열었음.

첨부: 1. EU Conference 프로그램 1부

2. EU Conference 초청장 명단 1부